

“쓸 돈이 없다”... 가계 구매력 ‘바닥’

실질 가계소득 2015년 3분기 이후 정체·감소... ‘소비위축-고용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깊어져

#. A씨에 사는 30대 B씨는 외벌이 가구다. 남편이 직장에서 세후 300만 원을 벌어들여 B씨는 전업주부로 2살 5살 두 딸을 키운다. 맞벌이를 하고 싶지만 어린 아이들을 직접 키우길 원하고, 베이비시터를 써가며 맞벌이를 한다. 해도 배보다 배꼽이 클 것 같아 외벌이를 택했다.

하지만 24평 반전세 아파트 보증금을 마련할 때 빌렸던 대출금이 3000만원 가량 남았고, 월세도 만만찮아 생활이 팍팍하기만 하다. 대출금 상환과 이자 8만원, 월세 7만원, 관리비 20만원, 보험료 30만원, 핸드폰 2개와 인터넷 등 통신비 20만원, 차 유류비 20만원 등 매달 숨만 쉬어도 고정적으로 220만원이 나간다.

남편 용돈으로 한 달에 30만원을 주고 나면 남는 돈은 100만원에 불과하다. 이 돈으로 4인가족의 식료품비와 아이들 교육비를 쓰고 나면 화장품 하나, 옷 한 벌 사는 것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한다.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등 이벤트가 있을 때는 적자가 나기도 한다. 얼른 돈을 모아 아이들이 더 크게 전에 반전세를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들어 치솟는 물가를 보면 한숨만 나올 뿐이다.

그야말로 사상 최악의 ‘소비절벽’이다.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는 서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슬금슬금 불어나기 시작한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어느새 1300조원까지 늘었고, 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자용하고 있다. 쓸 돈이 없는 서민들이 소비를 줄이면서 국내 내수기업들도 비평



트럼프 시대 한국경제 진로 국제세미나.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삼의회관에서 개최한 ‘트럼프 시대, 한국경제의 진로 세미나’에서 빅터 차(Victor Cha) 미국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석좌교수 겸 조지타운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를 지른다. 기업들은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바꾸거나 고용을 줄이고 소비자가가를 올리며 이익을 늘려보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소비위축-고용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깊어지고 있다.

가계부채가 겹잡을 수 없이 늘어난 상황에서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중금리가 오르며 서민들의 부담은 더 커졌다. 앞친데 달친 격으로 국제 곡물가, 유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작황 부진과 교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유행으로 신선채소와 계

란가격 등이 상승하면서 가계의 구매력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우리 경제의 ‘빨간불’이다.

통계청 가계 동향에 따르면 물가를 반영한 실질 가계소득은 2015년 3분기 이후 5분기 정체되거나 감소해왔다. 소득이 가장 안정적인 40대 가구 소득 역시 지난해 3분기 처음으로 감소했고, 외벌이 가구 소득은 3분기 연속 감소했다.

한국은행 역시 올해 국내총생산

(GDP) 성장을 전망치를 2.5%로 하향 조정하면서 민간소비 둔화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소비절벽의 최점점 유통업계에서는 우리 경제가 올해 사상 최악의 소비빙하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집값, 주식 상승에 따른 자산증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구조 조정 등으로 실질 구매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기업들이 동남아 등 수출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도 내수시장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뉴시스

현대차, 글로벌 12개사와 수소차 동맹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 SUV 형태 수소전기차 출시

현대자동차가 다임러, 도요타, BMW 등 글로벌 12개사와 수소차 동맹을 맺기로 했다.

현대자동차는 17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공식 출범한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의 공식 회원사로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이 열고 있는 17일 발족식을 개최한 수소위원회는 완성차, 에너지기업 등 13개 업체로 구성됐으며, 지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수소위원회 회원사로는 현대차와 ▲기아사 ▲다임러 ▲도요타 ▲로얄더치셀 ▲린데 그룹 ▲BMW ▲알스톰 ▲엔지니어링 ▲에어리퀴드 ▲엔지 ▲토탈 ▲혼다가 포함됐다.

수소위원회는 이들 13개 기업 가운데 에어리퀴드와 도요타를 초대 의장으로 선출했으며, 2개의 의장사를 필두로 활동할 계획이다.

이날 수소위원회는 수소연료를 대체 에너지로 적극 사용해 줄 것을 국제사회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그룹 측은 밝혔다.

수소 연료가 탄소 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 에너지원으로서 저탄소, 친환경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

는 글로벌 사회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이유다.

아울러 위원회는 앞으로 세계 각국의 정부, 기업,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수소 연료 상용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위원회는 화석연료, 전기에너지로부터 생산할 수 있고,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 연료인 수소가 미래 신성장 동력 및 환경 문제 해소 차원에서 비중이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수소차 보급 대수를 2030년까지 신차 비중의 10%에 달하는 63만대까지 확대하고 수소 충전소도 52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현대차도 글로벌 수소전기차 선도 기업으로서 오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시점에 맞춰 수소전기차를 위한 전용차를 기반으로 새로운 SUV 형태의 차세대 수소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다.

현대차의 차세대 수소전기차 모델은 최신 ADAS시스템(첨단운전자보조장치) 등 현대차의 최신 기술들이 대거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지난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전기차 상용화에 성공했다. /뉴시스

‘갤럭시S8’ 출시 3월로 늦춰질 듯

MWC에서는 협력사에게만... 외신 “본격출시는 3월29일”

‘삼성전자의 새로운 전략품’ 갤럭시 S8(가칭)의 출시 시기가 3월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S8의 일반 공개를 당초 예상했던 오는 2월 스페인에서 열리는 MWC(Mobile World Congress)에서가 아닌 3~4월로 늦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IT 외신들은 갤럭시S8의 출시 날짜가 3월29일로 정해졌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외신 샘모바일은 이날 “갤럭시S8의 출시 날짜는 3월29일이 될 것”이라고 전하며 “신제품은 4월 넷째주에 본격적으로 풀릴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가격은 849유로(약 106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MWC에서는 협력사에게만 제품을 공개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번 신제품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하반기에 출시한 갤럭시 노트7의 실패 영향을 극복하는 발판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삼성은 기기 결함으로 발화 사건이 터진 전작으로 인해 신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테스트 등에 상당한

공을 들여온 것으로 예측된다.

외신은 갤럭시S8의 출시 시기를 추측하며 더불어 갤럭시S8은 화면크기가 5.7인치, 옛지는 6.2인치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하단에 있던 홈 버튼과 테두리까지 없애는 전면 풀스크린이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인수한 비브랩스와 함께 개발한 인공지능 비서 ‘빅스비’도 탑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아직 스펙과 출시 시기에 대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2월 열리는 MWC에 참석할 예정이지만 그 자리에서 갤럭시S8을 공개할 지 여부는 미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오는 23일 갤럭시 노트7 배터리 발화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발화 원인과 함께 향후 재발 방지책도 제시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전략 제품이 지난해 추락한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좋은 기회인 만큼 기업 입장에서라도 출시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부모 형제자매 난치성 환자면 장애인 공제 가능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과 중풍 등에 걸린 중증환자라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다. 따로 사는 조부모님이나 처·시부모님 역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7가지’를 발표했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놓친 항목은 장애인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법상 장애인인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어 암·중풍·만성신부전증·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환자로 포함된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중증환자일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서를 받

납세자연맹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7가지’

급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소득이 없는 조부모, 시·처부모님의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간소화서비스에 미리 정보제공동의를 하는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공제도 편리하다.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이 없어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부

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를 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지정가족의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퇴직 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지 않아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보험료·기부금세액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퇴직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국제결혼으로 인해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외국인인 경우라도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 처·시부모님이 외국에 있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공제도 받을 수 있다.

본인 및 부양가족이 6·25참전 및 공무원 부상 등으로 인해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거나 베트남전 참전 등으로 발생한 고평제후유증 환자인 경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 4147만원 이하의 미혼근로자는 50만원의 부녀자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아버지가 자녀보다 소득이 적다면 소득 없는 어머니나 동생의 공제는 자녀가 갖기 유리하다.

납세자연맹은 “2011~2015년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항목은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부안

마실 오세요

주소: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67, 202호

만복건설 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扶來滿福